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12월 26일 아베신조총리는 과거의 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고 A급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번 참배는 본전에 오른 정식형식을 취한 것으로 아베총리는 ‘내각총리대신 아베신조’라고 기재하며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아베총리는 “순국 영령들에게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발언했으나 아시아침략을 꾀하고 지휘한 A급전범을 ‘영령’으로 현창한 신사에 수상이 참배하는 것은 침략전쟁의 반성에 입각한 평화이념, 정교분리원칙인 헌법 20조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전후의 국제관계를 구축해 온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일중공동성명 그리고 전후 50년국회결의, 일한파트너십 공동선언 등 국내외 합의를 모조리 짓밟은 폭거입니다. 일한정상회담은 2011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았으며 센카쿠열도문제를 둘러싼 일중관계가 긴장상태에 놓여있는 지금, 총리의 야스쿠니참배는 일본이 국제사회 속에서 구축하길 원하는 지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전전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이 신관이 되어 전쟁의 비참한 실태를 감추고 전사자를 현창해 유족의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시킨 제사의 장이었습니다. 육·해군성이 관할하는 군사시설이기도 하며 민중을 전쟁으로 내몬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전후에는 하나의 종교법인이 되었으나 A급전범의 합사·현창이나 유취관 전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도 영령현창·침략미화 시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침략전쟁에 내몰려 죽은 약 28,000명의 대만인, 약 22,000명의 한국·조선인을 포함한 다수의 전몰자가 지금도 합사되어 있습니다.

대만·한국의 유족으로부터 절실한 합사취소 요구가 있음에도 야스쿠니신사는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번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로 인해 세계는 야스쿠니신사에 구현된 잘못된 역사인식을 일본정부가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아베정권은 지금의 임시국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해 외교와 안전보장에 관한 총리관저의 사령탑기능을 강화하고,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빼앗고 나아가서 차기 통상국회에서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 헌법 9조의 해석개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종합해서 생각하면 이런 시기에 아베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일본이 평화주의를 부정하고 또 다시 민중을 전쟁터로 내모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사표명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향해 평화로운 일본,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반대하며 강력히 항의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찬동단체]

액티브·유지엄「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위안부」문제해결 올연대 네트워크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워크 21

중국인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

피스보트

허락하지마!헌법개악·시민연락회